희망·치유 연등행렬, 온라인서 펼쳐진다

보존위, 4월 21일 연등회 일정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연등행렬이 올해에는 도심 대신 온라인에서 펼쳐진다.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원행)는 4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일정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로 올해도 도심을 오색 연등으로 수놓는 대규모 연등행렬은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로 연등회가 꾸며질 예정이다.

연등회의 시작은 오는 4월 28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봉축점등식으로 알린다. 올해 봉축탑은 익산 미륵사지석탑으로 조성됐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 불을 밝힌다.

연등회 연등법회와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기념법회는 5월 15일 오후 6시 조계사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연등 행렬, 사찰서 별도 진행
연등법회·등재기념식 'zoom'
온라인 통한 연등 행렬 구현
문화·공연마당 등 유튜브로

연등법회에는 연등회를 함께 준비해 온 참가단체, 해외사찰 등을 줌으로 연결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함께 밝힌다. 축제 분위기를 더했던 어울림마당의 연등회 노래와 연희단의 율동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각자 자리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대신한다.

불기2565(2021)년 연등회 주요행사 일정(안)

행사명		일 정	비 고
봉축 점등식		4월 28일(수) 오후 7시 (전시:4월 28일(수) ~ 5월 30일(일))	서울광장(예정)
가로연등		4월 28일(수) ~ 5월 30일(일)	
전통등전시회		5월 14일(금) ~ 5월 30일(일)	조계사, 봉은사, 청계천 등
전통등전시회	청계천 전통등전시회	5월 7일(금) ~ 5월 21일(금)	장소 미정
전통등전시회	등간 전시	5월 8일(토) ~ 5월 30일(일)	조계사 앞
전통등전시회	우정공원 전시회	5월 11일(화) ~ 5월 30일(일)	
전통등전시회	봉은사 전통등전시회	4월말 ~ 5월 23일(일)	예정
연등법회 및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		5월 15일(토) 오후 6시	조계사 / 유튜브 중계
연등행렬		5월 15일(토) 오후 7시 40분	조계사 주변 / 유튜브 중계
연등놀이(참가단체 행렬)		5월 15일(토) / 16일(일) / 19일(수)	각 사찰 및 단체
유튜브로 만나는 전통문화마당		5월 16일(일) ~ 5월 19일(수)	유튜브 업로드
봉축법요식		5월 19일(수) 오전 10시	조계사 및 전국 사찰
유네스코 등재 기념 연등회 특별 전시회		4월 14일(수) ~ 7월 23일(금) * 관람시간 : 매일 10:00~17:00 * 월요일 휴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
온라인 연등행렬		www.llf.or.kr/2021lanternparade	

※상기일정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에는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를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하며, 유네스코 등재를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도 진행된다.

연등회의 백미인 연등행렬은 연등회 참가단체 및 사찰별로 특성과 상황에 맞게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이뤄진다. '등(燈)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퍼포먼스', '각자의 자리에서 등 달기', '연등 나눔 행사', '희망과 치유를 기원하는 탑돌이' 등을 5월 15일, 16일, 19일에 진행된다.

연등행렬은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다. 4월 23일 연등회 홈페이지(www.LLF.or.kr/2021lanternparade)에 정식 오픈하는 온라인 연등행렬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용자가 참가단체를 선택하고 이름, 소원을 작성하면 전통등을 들고 행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등행렬 다음날 서울 종로 우정국로 일대서 열렸던 전통문화마당·공연마당은 영상 콘텐츠로 사전 제작해 5월 16일 공개된다. △한국불교 소개 △DIY 전통무드등 만들기 △전통 금니 사불체험 △작은 팔모등 만들기 △연꽃컵등 만들기 △선무도 체험 △연꽃드림캐쳐 만들기 △리사이클링 아트 등을 집에서 유튜브 연등회 채널을 통해 체험해보고 즐길 수 있다.

서울 도심을 수놓았던 형형색색의 연꽃등, 단체 행렬등, 장엄등을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전통등 전시를 확대한 것도 눈길을 끈다.

청계천 전통등전시회는 5월 7일~21일, 조계사 앞 등간 및 행렬등 전시는 5월 8일~30일, 종로 및 우정국로 등(燈)의 거리 전시는 4월 28~5월 30일, 봉은사 전통등전시회는 4월 말부터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종로 버스정류장 가로등에 연꽃 모양의 조형등을 설치하고 가로연등 일부 구간도 전통등을 배치해 한지등(燈)의 멋스러움을 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인에게 연등회를 알리기 위한 글로벌 서포터즈는 올해에도 구성됐다. 20개국 출신 주한 외국인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 8일 온라인을 통해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연등회의 역사 및 가치 교육, 등 만들기, 율동 영상 번역 등을 서포터즈 개인 SNS를 통해 연등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젠 사찰도 생태거점으로 변모"

한마음선원 EM지구사랑
19일 승단 환경교육 실시

4월 18~19일 스님 대상
환경인식 개선교육 진행
5월2~3일 2차 승단교육



EM지구사랑작은실천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진행한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에 참가한 스님들이 환경인식개선 강연을 듣고 있다.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 정서 교감의 중요성을 모르는 상태를 우리는 '생태맹'이라고 합니다. 사찰은 인간과 자연의 연기적 관계를 인식하는 불교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생태사찰이 되어야 합니다."

4월 19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는 70여 스님들이 모였다. 이시대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전하는 강사들의 말에, 안양본원 3층 강당과 4층 강당에 나눠 자리한 스님들은 높은 관심을 표했다.

EM지구사랑작은실천(대표 혜솔, 이하 EM지구사랑)이 4월 18일 입재해 19일까지 개최한 종교인 환경교육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에서는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 스님들이 대거 모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가 더해진 이날 교육에 해외지원 스님들도 동참했다.

EM지구사랑의 환경교육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는 환경부 산하 국가환경교육센터의 5대 종교 종교인 환경교육 지원사업 선정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12일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에서 첫 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교육은 18일 최서윤 생태시민교육연구소 공명 대표의 '기후변화 실태와 우리의 나아갈 길', 19일 심선화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자원순환과 미세플라스틱', 최미희 강사의 '생태사찰과 한마음선원' 등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지구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많은 부분에서 실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실천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님들이 모인 이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지구살리기 프로젝트는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5월 2일 오후 2시 3강 '지구를 살리는 녹색기초생활습관교육2'와 5월 3일 오전 8시 '녹색사찰 가꾸기' 강연으로 이어진다. 신도들을 위한 환경교육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한마음선원 유튜브채널로 실시간 중계된다.

안양 한마음선원=노덕현 기자

12개 사찰 '평화통일도량'으로 거듭

민추본, 4월22일 협약식 개최
"평화도량 108곳까지 확대해"

조계종 사찰 12곳이 평화통일도량으로 거듭났다. 사찰들은 향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후원사찰로 활동하며 한반도 평화에 뜻을 모을 것을 발원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는 4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호~13호 후원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1호 후원사찰 인천 능인사에 이어 협약을 체결한 사찰은 안양 염불사(주지 향림), 경기도 광주 장경사(주지 진광), 강진 무위사(주지 법오), 고양 흥국사(주지 원용), 성주 심원사(주지 응관), 광주 원효사(주지 해청), 성남 원적정사(주지 도봉), 당진 영탑사(주지 상준), 원주 구룡사(주지 해공), 안성 석남사(주지 덕운), 용인 원각사(주지 주혜), 서울 옥천암(주지 원묵) 등 12곳이다.

민추본은 이날 협약에 참여한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평화통일도량' 현판을 전달했다. 또 스님들은 후원협약서에 서명하며 "민추본과 함께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을 만드는 길에 동참하겠다"고 발원했다.

월우 스님은 "평화통일도량 협약사업은 민추본의 남북불교교류 및 통일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오늘 협약을 맺은 평화통일도량들은 종단 차원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으로 민족 화해와 통일정토 구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현판 전달 및 후원협약에 이어 각 사찰 주지 스님들은 후원사찰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진흥원, 봉축지원금 3000만 원 전달

4월19일 봉축위에…코로나19 지혜로운 극복 당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기 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19일,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봉축행사 지원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한구 진흥원 이사장은 지원금을 전달하며 "지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의 지혜와 자비정신이 더욱 필요한 때"라며 "국가 차원에서는 지혜로운 대처가, 개인 차원에서는 자비의 마음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부처님오신날 동체대비(同體大悲) 마음으로 불교가 우리 사회에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자"고 봉축 메시지를 전했다.

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등불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건전한 공동체의 복원을 진행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적인 화합의 장이 되고 있는 연등회 등 봉축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봉축위원회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봉축 관련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해오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1통화,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백만원력결집불사 모연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서 기부됩니다.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설립한 공익기부재단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www.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